

대만의 탈핵운동과 서울시 원전 하나 줄이기의 만남

윤순진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 교수)

1. 두 사회를 연결한 발걸음

대만은 요즘 탈핵운동이 한창이라 우리 사회에서도 대만의 탈핵 관련 이야기들이 심심찮게 회자되고 있다. 비단 탈핵운동 진영만이 아니다. 찬핵 진영에서도 대만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에 관심을 가지고 있다. 무려 공정률 98%-원자력에너지위원회(Atomic Energy Council)에 따르면 룽먼 제1원자로는 97.7%, 제2 원자로는 91.0%-에 이른 원자로 두 기의 건설을 동결시키고 더 이상 원전을 짓지 않겠다고 선언하였기 때문이다. 세계적으로 이런 사례가 흔치 않기에 환경·에너지정책 전공자로서 내게도 대만 사례는 관심을 갖고 들여다봐야 할 의미 있는 사례이다. 그런데 그 대만이 우리나라, 특히 서울에 요즘 깊은 관심을 보이고 있다. 원전 건설을 중단한 이후 어떻게 할 것인지를 고민하고 있던 차에 서울의 원전 하나 살리기를 대안적인 경로로 보게 된 것이다. 대만과 서울, 이 둘의 연결고리 중 하나로 2015년 1월 12일~16일 동안 대만을 방문하게 되었다. 우리는 대만을 보면서 어떻게 거의 완공된 원자로의 완공과 운전을 막을 수 있었을까 하고 놀라워하는 반면, 대만은 지금 서울에서 진행되고 있는 원전 하나 줄이기

란 정책과 운동을 보면서 탈핵 이후 가야 할 길들에 대한 밑그림을 그리고 있다. 바로 이런 흐름 속에서 두 사회를 연결하는 작은 역할을 하면서 나는 서로 다른 사회들 간에 만남과 정보의 교류가 얼마나 중요한가를 깊이 느꼈다.

대만의 탈핵운동 중심단체는 녹색공민행동연맹(綠色公民行動聯盟, Green Citizens' Action Alliance, GCAA)으로, 서울시 원전 하나 줄이기에 대해서 대만 사람들에게 가급적 많이 알리게 하려고 나의 대만 방문일정을 쉴 틈도 없게 짜놓았다. 타이베이에 도착하자마자 일반 시민을 상대로 한 대중 강연을 밤 10시까지 가졌고, 이튿날에는 탈핵운동의 최전선에서 활동하고 있는 운동가들과 환경단체 활동가들, 언론기자들, 대학교수를 비롯한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한 보다 깊이 있는 워크숍, 타이베이와 신베이 부시장들과의 간담회, 급행열차를 타고 남쪽 가오슝으로 이동해서 그날 밤 늦게까지 대중 강연 후, 이튿날의 가오슝 부시장과의 간담회, 여기에도 틈 날 때마다 여러 언론사들과 인터뷰 시간을 가졌다. 몇 개의 유명 주간지들은 물론이고 TV와 라디오 프로그램에 나갔다. 한국에서 온 일개 교수인 내게 그들은 묻고 싶은 게 너무나 많았다. 새로운 변화에 목말라 하며

탈핵의 길을 헤쳐 나가려는 그들의 모습에 내 가슴이 뜨거워졌다.

서울시 원전 하나 줄이기로 대만을 방문하게 된 계기가 된 것은 2014년 7월, 지금은 고인이 된 울리히 벡(Ulrich Beck) 교수를 초청해서 서울대학교에서 개최한 컨퍼런스였다. 서울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와 한상진 중민이론연구재단,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 BK21+ 사업팀은 “The Seoul Conference 2014 with Professor Ulrich Beck” 이란 학술회의를 7월 9일에서 12일까지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 GLocal 홀에서 4일에 걸쳐 열었다. 그 때 나는 “The One Less Nuclear Power Plant Initiative in Seoul: An Experiment of Deliberative Energy Governance Facing Climate and Energy Crises and its Challenges”란 제목으로 서울의 원전 하나 줄이기의 이모저모에 대해 이야기하면서 이를 숙의적인 에너지 거버넌스의 관점으로 분석해서 발표하였다. 이 발표를 들은 대만 국립대 교수가 그 다음 달에 타이베이

에서 열렸던 “2014년 아시아 위험분석학회”에 초청받아 발표하러 간 내게 녹색공민행동연맹 활동가들을 만나 간단하게 서울의 원전 하나 줄이기에 대해 발표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그는 내 대학원 동창이자 대만에서 탈핵운동에 활발하게 참여해 온 터였다. 그래서 학회 중간에 짬을 내서 그들을 만나 간단하게 발표를 했더니 그들은 내게 겨울에 타이베이를 한 번 방문해서 강연을 해줄 것을 당부하였다. 그들을 만났던 그 카페에는 탈핵운동에 동참한다는 사실을 나타내는 탈핵깃발이 걸려 있었다. 타이베이의 상점과 집마다 내걸렸던 탈핵운동의 깃발, 그 깃발만큼이나 녹색공민행동연맹 활동가들과의 만남도 인상적이었다. 이렇게 해서 대만 방문이 이루어졌다. 넉넉하지 않은 시민단체가 서울에서 손님을 불렀기에 나 또한 그들이 짜놓은 빈틈없는 일정을 열심히 소화하기 위해 애썼다. <그림 1>은 나의 대만 방문 일정 중에 있었던 여러 행사와 언론매체에 실린 인터뷰 기사들의 일부다.



「市民就是能源。」
首爾減少一座核電廠計劃

綠色公民行動聯盟 Green Citizens' Action Alliance
【市民就是能源!】

韓國首爾市正在進行一場能源革命!

2012年首爾市長朴元淳提出與擁核的中央政府背道而馳的「減少一座核電廠行動計畫」(One Less Nuclear Power Plant Initiative, 簡稱OLNPP), 預計在2020年將首爾市電力自給率提升至20%, 2014年底前減少200萬噸油當量(TOE)的能源使用, 相當於一個核電機組的發電量。如今, 目標不僅提前達成, 也即將步入第二階段, 提出比之前再減少兩倍發電量的計劃了, 節能成效非常驚人, 到底首爾是怎麼做到的呢?

這次我們邀請首爾大環境學院的尹語直教授來



韓國首爾市長「省下一座核電廠」

韓國中央政府的核能政策, 一直以來都是「增加核能發電量」。但首爾市長朴元淳卻提出「減少一座核電廠」的計劃, 這在韓國政壇中, 可說是「反其道而行之」。

朴市長在2012年提出「減少一座核電廠」的計劃, 是為了減少核能發電量, 並提高再生能源的發電量。這項計劃在韓國政壇中, 可說是「反其道而行之」。

朴市長在2012年提出「減少一座核電廠」的計劃, 是為了減少核能發電量, 並提高再生能源的發電量。這項計劃在韓國政壇中, 可說是「反其道而行之」。



「省下一座核電廠」

韓國中央政府的核能政策, 一直以來都是「增加核能發電量」。但首爾市長朴元淳卻提出「減少一座核電廠」的計劃, 這在韓國政壇中, 可說是「反其道而行之」。

朴市長在2012年提出「減少一座核電廠」的計劃, 是為了減少核能發電量, 並提高再生能源的發電量。這項計劃在韓國政壇中, 可說是「反其道而行之」。

朴市長在2012年提出「減少一座核電廠」的計劃, 是為了減少核能發電量, 並提高再生能源的發電量。這項計劃在韓國政壇中, 可說是「反其道而行之」。

<그림 1> GCAA 페이스북에 게재된 대중강연(좌); 주간지 “新新聞”(중)과 “今周刊”의 기사(우)

2. 대만 탈핵운동의 현재

그렇다면 앞서 대만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난 걸까? 지금 대만 사회에서 탈핵운동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 걸까? 대만에는 현재 원자력발전소가 세 군데 있다.¹⁾ 각 원자력발전소에는 원자로가 각각 2기씩 있어서 총 6기의 원자로가 가동 중에 있다. 이들 중 제1원자력발전소와 제2원자력발전소는 대만 최북단인 타이베이 시를 감싸고 있는 신베이 시에 입지하고 있으며 제3원자력발전소는 최남단인 만산에 입지하고 있다. 세 원자력발전소들은 모두 지진대에 위치하고 있을 뿐 아니라 대도시 인근에 입지해 있기 때문에 사고시 영향 받는 인구 수가 상당히 많다. Nature 지에 따르면 제1원전과 제2원전은 반경 30km 이내 인구밀도가 가장 높은 세계 3대 원자력발전소 가운데 2위와 3위를 차지하고 있다. 두 발전소 모두 타이베이 도심지에서 직선거리 30km 이내에 위치해 있다. 제1원자력발전소는 진산원전이라 불리는데 1,208MW 규모로 주변 인구가 500만 명이다. 제2원자력발전소는 완리원전으로 1,933MW 규모인데 주변 인구가 550만 명에 달한다. 1위를 차지한 파키스탄 가라치 항구의 카누프(Kanupp) 원전은 30km 이내 주변 인구가 800만 명으로 많지만 대만 제1,2원전의 용량을 합한 것에 비해 시설용량이 1/23에 불과하다. 즉, 타이베이지역은 인구규모나 시설용량 면에서 세계에서 핵재앙 위험도가 가장 높은 지역이라 할 수 있다.

높은 반핵운동의 열기로 마잉주 전 국민당 총통이 지난해 4월 “건설을 잠정 중단하며, 재가동 여부는 국민투표 결과에 따라 결정하겠다.”고 밝힌

원자로로는 제4원자력발전소인 룽먼원전의 원자로 2기다. 집권 국민당은 ‘잠정 중단’이라고 표현했지만 대만국민들은 일시적 중단이 아니라 다시는 공사를 재개하지 못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전국적인 탈핵 열기가 높은만큼 공사를 재개할 경우 앞으로 있을 선거에서 지지를 받지 못할 것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탈핵진영에서는 여론에 큰 변화가 없도록 현재의 탈핵열기를 유지하는 게 관건이라고 보고 있다. 봉인 기간이 길어지게 되면 봉인 해제 비용도 높아지기 때문에 되도록 공사를 재개하지 못하도록 이러한 탈핵열기를 유지하는 게 중요하다고 보고 있다.

룽먼 제 4원전은 1980년에 기획된 이후 1996년에 예산이 통과되었고 1998년과 1999년에 룽먼 1,2호기 공사에 착수하였다. 미국 GE사가 원자로와 원전지구 설계를 맡았고 일본 히타치(Hitachi)와 도시바(Toshiba)가 원자로 제조를 맡았다. 이 원자로로는 일본이 최초로 수출한 원자로로 알려져 있다. 발전기는 일본 미쓰비시 제품이며 이외 기기 설비는 다른 회사가 분업한 형태의 상당히 복잡한 시스템으로 관리와 통합에 문제가 있었다. 당초 56억 달러로 예상되었던 공사비가 90억 달러로 증액되었으며 이러한 비용 증가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문제점을 안고 있어서 대만 원자력관리기구는 2011년 이 건설을 “완전한 실패(totally failure)”라고 평가하였다. 대만 정부는 2006년에 제 4원전을 완공할 계획이었지만 공사에 들어간 지 15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완공되지 못했다. 후쿠시마 핵 발전 사고 이전 대만 정부는 2013년에 제4원자력발전소가 상업적 가동에 들어갈 것으로 예상하였고 기존의 3개 핵발전소의 원자로 수명

1) 사실 원자력발전이나 원자력발전소란 용어는 과학적으로 타당하지 않다. 우라늄의 핵분열을 통해 에너지를 얻기 때문에 원자력발전이 아니라 핵발전소란 표현이 과학적으로 타당하다. 하지만 핵발전이라는 용어가 핵무기를 연상하도록 하기 때문에 정부나 공공담론에서 핵발전이란 말 대신 원자력 발전을 쓰고 있고 사회적으로 이 용어를 쓰도록 은근한 압력이 작용하고 있다. 하지만 우리 2011년 일본 후쿠시마 핵발전소 폭발 참사 이후 우리 사회에서도 핵발전이란 용어가 광범위하게 쓰이고 있다. 아울러 반핵이란 용어보다는 핵발전으로부터 점진적으로 벗어나는 의미의 탈핵이란 용어가 더 널리 쓰이고 있다. 하지만 이 글에서는 독자들이 더 친숙한 용어인 원자력발전이나 원전이란 용어를 쓰도록 한다.

을 20년 연장할 계획이었다.

사실 제 4원전 건설이 이렇게 지체된 것은 반핵운동의 결과이다. 대만에서 반핵운동은 가장 오래된 환경운동의 한 갈래로 민주화운동과도 연결되어 있다. 대만의 이미 운영 중인 세 개의 원자력발전소는 모두 계엄령 치하에서 건설된 것이었다. 가장 오래된 제1원전의 진산1호기와 2호기는 각각 1977년과 1978년에 상업 운전해 들어갔으며 설계수명은 40년이다. 반면, 1,350kW짜리 2기를 건설 중이었던 제4원전은 민주화 이후 건설이 추진된 것이었다. 1986년에 일어난 구소련의 체르노빌 원전폭발사고와 1987년 계엄령 해제를 계기로 반핵운동이 거세게 일어났다. 대만환경보호연맹(臺灣環境保護聯盟, TEPU)과 공랴오 지역주민의 반핵운동과 설계상의 이유로 룽먼원전의 완공이 지연되다가 이런 반핵운동을 기반으로 2000년에 민주진보당의 천수이벤(陳水扁)이 장기집권해 온 국민당 후보를 맞서 대통령에 당선되었다. 민진당 출신 대통령에도 불구하고 여소야대 국회에서 원전 건설에 찬성하는 국민당의 지지로 2001년부터 원전 건설이 재개되었다. 하지만 2011년 일본 후쿠시마 원전참사로 대만 국민들의 원전에 대한 인식이 크게 바뀌면서 2013년 5월의 경우 20만 명이 넘는 시민들이 반대운동에 참여하였다. 특히 룽먼 원전이 중단층 시대에 건설되고 있는 데다 건설기간이 오래 걸려 낙후된 설비로 인한 고장 우려 또한 크다.

대만 국민당 정부가 제4원전 건설 잠정 중단 선언을 하게 된 도화선은 2014년 4월 22일 민진당 전 대표이자 유명한 반핵활동가인 린이슝(당시 73세)이 무기한 단식농성을 시작한 것이다. 그는 중단층시대에 입지한 데다 시운전 테스트에서 잇따라 사고가 발생한 문제투성이의 제4원전 건설을 중단하고 유권자 과반수 참여를 발의조건으로 하는 국민투표법의 개정을 요구하였다. 2003년 국민투표법이 발효되었지만 과반수라는 높은 문턱으로 인해 실질적으로 국민투표 발의가 이루어지기 어려워 직접민주주의 정신을 거스르고 원전정

척에 대한 국민투표 발의가 이루어지기 어렵기 때문이다. 린이슝 전 대표의 단식 소식이 알려지면서, 이념적 성향과 세대 구분을 떠나 만 명 이상의 시민들이 모여들었고 고양된 여론과 시위 열기로 국민당은 잠정중단을 선언하기에 이르렀다.

대만의 탈핵운동은 40대 활동가가 주축이 되는 주니어(Junior) 시민단체들을 통해 확산되고 있는데 대표적인 단체가 녹색공민행동연맹이다. 이들은 정당에 대한 호불호를 가진 기성세대 환경운동가들과 다르게 국민당-민진당의 진영논리를 넘어 창의적인 캠페인으로 국민여론을 주도해 가고 있다. GCAA는 100명 이상의 탈핵 씨앗 강사를 키워 대만 곳곳에서 순회강연을 하며 시민의식을 고양시켰다. 또한 일반시민이 보다 친숙하게 반핵운동에 참여하도록 하기 위해 음반을 제작하고 다큐멘터리를 만들어 상영하였다. 보다 많은 시민들의 참여의지를 높이고 이를 확산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기 위해 탈핵깃발 걸기운동을 펼쳤다. 탈핵깃발은 당핵강연을 들었던 한 카페 주인이 아이디어를 낸 것으로 <그림 2>의 오른쪽에 보이는 것처럼 짧은 기간 동안 1만 개의 깃발이 주택가는 물론 카페와 국숫집, 빵집 등의 상가와 사무실에 내걸렸다. 그만큼 대만의 탈핵운동은 대중적 지지를 얻고 있다.



출처: 흥선한 발표자료(2015년 2월 3일)
 <그림 2> 대만의 탈핵시위(좌)와 여러 곳에 내걸린 탈핵깃발(우)

하지만 대만 탈핵운동은 여전히 진행 중이다. 공정률 98%로 동결된 제 4원전 건설이 재개될 가능성이 높지 않다고 하더라도 가능성이 아주 없지는 않다. 언제 치르게 되는지 아직 일정은 정해져 있지 않지만 국민당 정부는 국민투표를 통해 건설 재개 여부를 결정하기로 하였는데 과반수를 발의조건으로 하는 국민투표법은 여전히 개정되지 않고 있다. 대만의 원자로 6기는 총 시설용량이 5,032MWe로 2013년에 39.8TWh의 전력을 생산했는데 이는 대만 총 전력 생산량의 19.1%, 1차 에너지 공급의 8%에 해당한다. 1988년에 총 생산 전력량 중 원자력발전 비중이 41%였던 데 비하면 비중은 많이 줄어들었지만 전력 생산 규모로 보아 원전은 대만에서 여전히 중요한 전력원이라 할 수 있다. 그리고 가동 중인 6기 원자로의 평균 가동년수가 33년으로, 가장 빨리 지어진 진산1호기는 2016년에 설계수명이 종료된다. 설계수명이 다한 노후화된 원전을 폐쇄할 것인지 수명을 연장할 것인지를 두고 대만 사회는 다시 격랑으로 빠져들 수 있다. 이런 때에 공사를 중단한 원전의 완공을 포기하고 노후원전을 단계적으로 폐쇄해 나감으로써 원전 제로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대만에게 원전 없는 에너지 이용의 새로운 길이 열려야 한다. 바로 대만 국민들은 이제 그 길을 서울의 원전 하나 줄이기에서 발견하고 있다.

3. 서울시 원전 하나 줄이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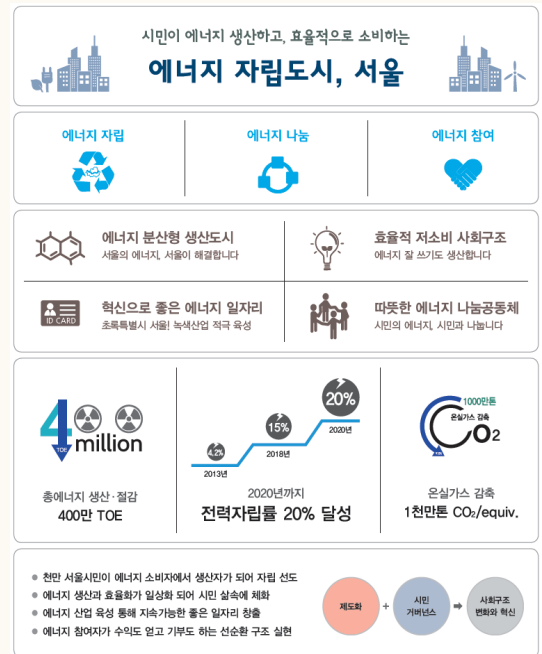
서울시 원전 하나 줄이기는 왜 대만에게 대안이 될 수 있는 걸까? 그들은 왜 서울에서 대안적인 길을 발견한 걸까? 서울의 원전 하나 줄이기는 어떤 내용으로 어떻게 진행되고 있으며 어떤 성과를 거두었으며 어디에 희망이 있기 때문일까? 사실상 최근 들어 서울시 원전 하나 줄이기는 대만만이 아니라 세계적으로 주목의 대상이 되고 있다. UN으로부터 ‘UN공공행정상」 「정책결정의 시민참여 촉진분야」에서 우수상을 수상했다. 에코 마일리지 프로그램으로 대표되는 시민참여와 에너지 절약문화 확대, 에너지 사용량 감소 등의 성과가 인정을 받았기 때문이다. 세계자연기금(World Wildlife Fund, WWF)과 지속가능성을 위한 세계지방정부(ICLEI)가 공동으로 주관하는 이니셔티브, 지구 시간 도시 도전(Earth Hour City Challenge, EHCC)에서는 탄소배출 감소와 기후변화 완화에 대한 서울시의 활동을 높은 평가를 받아 ‘2014 기후변화대응 행동 우수도시상’을 수상하기도 하였다. 세계 녹색건축위원회(World Green Building Council, WGBC)는 원전 하나 줄이기 정책을 인정하여 서울시에 기후행동지도자상(Climate Action Leadership Award)을 수여하였으며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세계 대도시협

의체인 C40는 글로벌 전기전자 기업 지멘스와 공동으로 서울시 태양광 보급 정책을 높이 평가하여 제2회 도시기후리더십 어워드에서 'C40-지멘스 어워즈'를 수여했다.

서울시가 추진하고 있는 “원전 하나 줄이기” 정책은 2012년 4월에 시작되었는데 현재까지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면서 의미 있는 성과를 쌓아가고 있다. 원전 하나 줄이기 정책은 “에너지 소비량이 많은 서울에서 에너지 절약과 태양광 등을 이용한 신·재생에너지 생산을 늘려 에너지 자립도를 높이고, 지구 온난화의 주범인 온실가스 발생량을 줄여 미래세대에게 건강하고 안전한 서울을 물려주고자”(서울시, 2012)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2011년 일본 후쿠시마 원전폭발 참사, 2011년 9.15 순환정전, 기후변화가 이 정책을 추진하게 된 배경이다. 또 2012년 1월 이치우 어르신(당시 70세)의 분신으로 전국적으로 알려지게 된 밀양 송전탑갈등도 이 정책의 또 다른 배경이다. 당시 소비 전력의 2.8%만 생산했던 서울 입장에서 전력 생산지와 송전선로 부근 지역주민의 저항은 에너지 이용을 둘러싼 정의와 윤리의 문제를 무시할 수는 없었다. 이에 서울시는 에너지 자립도를 높임으로써 정전으로부터 안전한 도시를 만들뿐 아니라 다른 지역에 에너지 공급을 둘러싼 환경불의를 바로잡아 나가겠다는 다짐을 담아 우너전 하나 줄이기 정책을 추진하게 되었다.

원전 하나 줄이기를 통해 서울시는 “에너지 자립도시”라는 비전을 내걸고 2012년 4월에 2014년 말까지 원전 한 기가 생산하는 200만 TOE 정도의 에너지를 절약하거나 생산하기로 하였다. 그런데 목표 시한 6개월 전인 2014년 6월 말에 앞당겨 이 목표량을 달성하였다. 2012년에서 2013년 사이 전국 평균 총 전력 사용량과 도시 가스 사용량, 석유 사용량이 모두 증가(각각 1.76%, 1.43%, 2.9% 증가)한 반면 서울시에서는 이 세 가지 모두 감소했다(각각 1.4%, 3.54%, 1.7% 감소). 이에 서울시는 2014년 8월부터 원전 하나 줄이기 2단계로 돌입하였다. 원전 하나 줄이기 2단계는 “

에너지 살림도시 서울”을 비전으로 하여, “에너지 자립, 에너지 나눔, 에너지 참여”를 핵심적인 가치로 내걸고, “분산형 에너지 생산도시, 효율적 저소비 사회구조, 혁신으로 좋은 에너지 일자리, 따뜻한 에너지 나눔공동체”를 정책 목표로 한다. 2단계에서는 2020년까지 달성해야 할 핵심지표로 총에너지 생산과 절감량 400만 TOE, 전력 자립률 20%, 온실가스 1천만 톤(tCO2eq) 감축(2011년 대비 20.5% 감축)을 내걸었다(서울시, 2014). 이러한 내용을 요약적으로 보여주는 서울시 자료는 <그림 3>과 같다.



출처: 서울특별시, 2014, “시민이 에너지입니다.”
<그림 3> 서울의 원전 하나 줄이기 2단계 비전과 가치, 목표, 성과지표

이러한 성과 못지않게 중요한 점은 이 정책을 추진해 온 방법과 과정에 있다. 바로 시민참여를 기본으로 하고 있다는 점이 무엇보다 특별하다. “시민이 에너지입니다”란 구호가 시사하듯이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시민이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통로를 제도적으로 보장하고 있다. 대표적인 사례가 에코마일리지와 에너지 자립마을 만들기, 아파

트 미니태양광 설치, 다양한 정책토론회와 포럼 등을 통한 참여이며 시민햇빛발전협동조합 출자도 중요한 참여다. 대학들은 서울그린캠퍼스협의회를 만들고 서울시와 MOU를 맺었으며 15개 기업들은 에너지 소비절감을 위해 노력하고 그 결과 발생하는 비용 절감분을 취약계층을 위한 에너지 서비스 제공에 기여하는 에너지를 나누는 이로운 기업단을 구성해서 활동하고 있다. 서울시는 시민사회의 참여 폭을 넓히고 시민사회로부터의 다양한 의견 수렴을 위해 원전 하나 줄이기를 출범시키기 전에 시민사회와 기업의 대표적인 인물들로 시민위원회와 실행위원회를 구성하고 이 위원회들과의 대화와 토론을 통해 원전 하나 줄이기의 윤곽을 잡아나갔으며 시민워크숍을 통해 시민들로부터 직접 의견을 수렴하였다. 또한 시민들이 참여하는 정책토론회와 소셜픽션포럼 등을 개최하여 시민의견을 광범위하게 수렴하였다. 서울시는 이렇듯 처음부터 시민참여를 통해 원전 하나 줄이기 종합대책을 마련하고 실행해 온 것이다.

게다가 '원전 하나 줄이기'는 이제껏 중앙정부의 영역으로 간주되어 온 에너지정책을 지방정부 차원에서도 개입하고 추진할 여지가 상당히 있음을 보여주었다는 데 큰 의의가 있다. 지방자치단체라는 한계에도 불구하고 원전 하나 줄이기라는 정책을 통해 제도 개선이나 독창적 사업을 통해 지역 에너지 정책의 성공적인 모델을 제시했다. 특히 중앙정부가 후쿠시마 핵발전 사고 이후에도 변함없이 원전확대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상황에서 "원전 하나 줄이기"란 이름으로 정책을 추진하는 것이 부담스러운 측면이 없지 않았지만 이 이름을 포기하지 않고 시민은 물론 기업과 대학교, 종교단체 등 다양한 조직들과 함께 목표 달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소규모 발전사업자들을 지원하기 위해 서울시가 시행하고 있는 서울형 발전차액 지원, 태양광발전시설 설치부지 임대료 개선 등은 다른 지방자치단체들로 확대되고 있는 중이다. 그리고 급기야 대만에게까지 알려지게 되었다. 나는 서울시 원전 하나 줄이기 실행위원회 위원으로서

이 정책의 출발과 과정, 성과, 한계와 가능성까지 나 스스로 보고 듣고 생각한 모든 점을 대중강연과 워크숍, 간담회, 언론 인터뷰 등을 통해 전하고자 하였다. 서울시는 여전히 만만치 않은 장애물들을 극복해야 하지만 지금까지 서울시가 보여온 과정과 성과는 탈핵 너머를 꿈꾸는 대만에 소중한 교훈을 전하는 사례가 될 수 있는 것이다.

4. 대만은 정책 전수의 대상이 아니라 배움을 주는 또 하나의 학교

대만 방문은 대만 사람들에게 서울시가 하고 있는 일들에 대해 이야기해 주는 데 목적이 있었다. 하지만 대만 방문을 통해 일반적으로 내가 그들에게 알려주기보다 나 또한 그들에게서 많은 것을 듣고 배우고 느낄 수 있었다. 탈핵을 향한 강한 열정을 온 몸으로 느낄 수 있었고 정부의 무능과 의지 없음, 어쩌면 완악함에 좌절하기보다 굽힘없이 앞으로 나아가려는 곳곳한 의지를 읽을 수 있었다. 닷새 동안 계속 내 옆에서 통역을 해준 20대 젊은 여성 아이야(Aiya)는 패기와 열정은 물론이고 단호함과 쾌활함까지 갖추고 있었다. 녹색공민행동연맹의 젊은이들은 열악한 사무실 환경에도 불구하고 그 자체로 건강하고 아름다웠다. 한 남성 활동가는 한 살된 아기를 늘 아기띠로 안고 출근했다. 그런 젊은이들과 며칠을 함께 보낸 것도 내겐 큰 즐거움이었다.

대만에서 내 강의를 들은 사람들이 서울의 원전 하나 줄이기에 대해 가장 인상적인 것으로 꼽는 것은 일정한 비전과 가치, 목표, 성과지표를 설정하고 이러한 큰 기획 속에서 개별 사업을 꼼꼼하게 배치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에너지 자립도시, 에너지 살림도시라는 비전을 세우고 에너지 자립과 에너지 나눔, 에너지 참여라는 가치를 지향한다는 대원칙을 세운 후 이러한 큰 원칙 속에서 사업들을 수립하고 이행하는 모습은 무언가 여러 사업들

을 하고 있지만 그 사업들이 어디를 향해 가고 있는지 알기 어려운 대만과 크게 다른 점이란 의견이 압도적이었다.

그리고 다수의 사람들이 더 알고 싶어한 것은 시민참여의 방법과 시민참여를 견인하는 방법이었다. 에너지문제를 풀기 위해 스스로 무언가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대만에서 아직은 충분히 많지 않은 상황이기엔 어떻게 시민참여를 활성화할 수 있을까란 질문이 적지 않았다. 사실 이 점은 대만만이 아니라 우리 사회에서도 끊임없이 고민해야 하는 문제다. 다만 나는 시민들이 직접 에너지행동을 실천할 수 있는 방법들이나 시민이 정책결정과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그 과정들을 지속적으로 모색하면서 계속 확장해 가는 게 중요하다는 사실을 이야기하였다.

사실 서울에서는 일본의 후쿠시마 핵발전소 참사 이후 에너지 문제의 중요성과 심각성에 눈을 뜬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학습하며 절전소 운동을 벌였고 이를 서울시에서 시정에 반영하기도 하였다. 바로 동작구 성대골 마을의 절전소 운동이다. 서울 시내버스 귀퉁이에도 적혀 있는 것처럼 “에너지를 절약하는 당신이 녹색발전소”란 것이다. 즉, 더 많은 에너지를 생산하기에 앞서 우리 삶을 에너지의 관점에서 꼼꼼히 들여다보면 새는 에너지, 낭비되고 있는 에너지가 상당하다. 우리가 원하는 게 에너지 그 자체가 아니라 에너지 서비스라면 동일한 에너지를 더 적은 에너지 투입으로 누리면 된다. 새는 에너지를 잡게 되면 굳이 그 새는 에너지를 생산하기 위해 발전소나 송전탑을 건설할 필요가 없어진다. 그래서 아끼는 것이 곧 생산하는 것이 되는 것이다. 이런 시각으로 추진한 것이 발전소가 아닌 절전소운동이다. 에너지 소비를 아끼는 모든 곳이 절전소가 될 수 있다. 동작구 성대골에서 시작된 절전소 운동은 성북구로 이어져 사회적으로 확산되고 있다. 대만시민들도 바로 이 절전소 운동에 상당한 관심을 보였다.

대만에서 있었던 대중강연과 이튿날의 워크숍 일정이 진행되는 동안 짧지 않은 시간이었음에도

자리를 뜨지 않는 여성 국회의원이 있었다. 오랜 기간 환경운동을 해온 분으로 누구보다 서울시 원전 하나 줄이기에 관심이 많아서 바쁜 의정활동도 접고, 특히 그 행사 전에 다리를 다쳐 휠체어로 기울여야 했지만, 이를 내내 진지하게 내 강연을 듣고 여러 질문을 던졌다. 또 넉넉하지 않은 녹색공민행동연맹을 지원해서 나를 초청한 부방문교기금회(Fubon Cultural & Educational Function)의 사무총장도 상당히 인상적이었다. 기자 출신인 그녀는 기업 후원을 받는 재단을 운영 중이었지만 탈핵에 대한 자기 신념을 공개적으로 드러내고 관련 시민단체를 후원하였다. 무엇보다 오랜 기간 반핵운동, 탈핵운동에 매진해온 대표적인 활동가 ‘홍선한’의 지치지 않는 끈기와 열정은 그의 푸근한 미소 때문에 더욱 빛났다.

지금 세계 여러 도시들에서는 기후에 강한 회복탄성을 가진 저탄소 도시들을 꿈꾸며 에너지전환 실험이 한창 진행 중이다. 핵발전의 위험을 감내하면서 핵발전을 늘려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것이 아니라 핵발전을 줄여나감으로써 핵발전 위험을 넘어 진정으로 안전하고 윤리적이며 책임 있는 도시로 변모하기 위해 꾸준히 노력 중이다. 서울시가 뿌린 씨앗들이 서울시에서 조금씩 자라고 있을 뿐 아니라 서울시를 넘어 우리나라 도시들은 물론 세계 여러 도시들로 퍼져 나가고 있다. 오는 4월 8일부터 11일 사이 서울에서 이클레이 세계총회가 열린다. 세계 여러 곳에서 시장과 군수 등 지자체장들이 서울을 방문할 것이다. 이번 이클레이 세계 총회에 에너지 전환이란 꿈과 비전을 안고 내가 만났던 대만의 여러 활동가들과 공무원이 방문할 계획이다. 그들과 좀 더 소통하면서 함께 에너지 전환의 길을 열어갈 수 있기를 희망해 본다.